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과학분야 전문인력 양성 14개 학과 19개 전공으로 편성



1981년 도시과학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은 도시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도시환경정책학과 등 14개 학과 19개 전공을 두고있으며 2002년에는 지적과 지리정보시스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지적정보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컴퓨터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시의 정보화에 관심이 큰 이 대학원의 고준환교수는 이론 및 실무와 관련된 제반 도시문제를 현장에서 발견하고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현실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정치적 기능의 도시를 중심으로, 고려 시대에는 농업과 교통의 요지에,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상업적 기능이 두드러진 곳에, 20세기 이후에는 공업이 발달한 곳에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8.15 광복 이후에는 해외동포의 귀국과 북한동포의 월남으로 60년대에는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도시는 형성 배경과 기능과 규모와 경관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만, 많은 인구가 집중해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2만명 이상인 곳을 도시로 보는데, 서울의 인구는 천만명(2000년 기준)을 넘는다.

학제간 연구통한 응용학문 추구

“도시는 사람과 그들의 활동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의되고 이해되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라는 고준환 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학과장)의 말처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적·사회적 환경과 인공시설물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그들의 다양한 활동은 도시의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킨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구집중, 빈곤, 주택이나 교통난, 공해, 범죄, 정신병과 같은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들을 수반해 왔다. “도시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학문 분과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쉽

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은 이러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학제간 연구’를 통한, ‘실천적’인 ‘응용학문’을 추구하는 곳. “우리는 서구 논리에 대한 편중을 지양하고 동서융합적 맥락에서 우리의 전통과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도시 연구의 학문적 도구로서

의 한국적 패러다임을 기초로, 오늘날 우리의 지배적인 생활환경인 도시의 사회·경제·계획·설계·공학 등 제반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한 지식을 토대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반 기능적, 물적 수단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고준환교수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도시과학(urban sciences)’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새롭게 정립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시과학이란 지금까지 체계화되지 않은 채 각 분과 학문마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도시문제 연구, 도시계획, 도시관리 등을 통합, 보강한 새로운 영역의 학문분야이다. 지난 1997년 서울시립대학은 각 단과대학에 분산되어 단편적 연구를 수행해 오던, 건축, 도시공학, 조경, 도시행정, 사회복지, 도시사회, 세무, 지적정보, 토목, 환경 등의 도시관련학과들을 묶어 기초 교육을 담당하는 ‘도시과학대학’을 학부에 설립하였고, 1981년에 도시과학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설립된 도시행정대학원을 지난 99년 도시과학대학원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처음에는 도시행정학과와 도시행정전공, 행정학과의 행정관리전공과 복지행정전공, 세무관리학과의 세무관리전공, 이렇게 3개 학과 5 전공의 설치 인가를 받은 도시행정대학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도시과학대학원에는 14개 학과 19개 전공이 있다. 도시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 도시경제와 토지문제 등 행정실무능력을 갖춘 도시행정가를 양성하는 '도시행정학과'를 비롯하여, 도시사회 문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치유와 예방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환경문제는 환경과학, 기술이 아닌 올바른 정책과 행정에 있다는 생각, 환경은 생물학과 화학과 생태학을 기초로 하여 정책학과 행정학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분야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환경정책학과'가 있다. 이 외에 교통관리학과, 행정학과, 공연행정학과, 환경조형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도시계획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공학과, 방재공학과, 조경학과가 있다. 오는 2002년에는 지적과 지리정보시스템 전공을 두는 '지적정보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넓은 의미의 도시과학으로서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과 같은 기존의 순수과학 및 공학과 예술분야를 모두 포괄한 것. "도시과학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학제간 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2001년 현재 도시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심화된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과학대학원 재학생의 약 20%는 서울시의 공무원이며, 이 외에 행정자치부의 위탁교육생, 시의원 및 구의원, 시민단체 인사 등이 재학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현장견학

학대학과 도시과학대학원과 함께 또 하나의 축으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도시과학연구원과 서울학연구소, 지진·방재연구소가 있다. 이들 연구소는 서울시 등으로부터 총 70여개의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한 바 있다.

지난 98년에 설립된 도시과학연구원은 대도시 문제와 도시의 안전문제를 연구하는 수도권개발연구소와 환경공학센터와 환경조형센터, 국제도시연구센터, 교통연구센터, 도시가로시설물연구센터, GIS연구센터 등 7개의 연구소와 센터를 두고 있다. 서울학연구소는 '서울학'을 육성, 확산하기 위해 서울정도 6백년을 맞이하여, 지난 1993년 서울특별시의 지원 아래 종합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학제적 연구를 지향한다. 지진·방재연구소는 도시안전을 위한 소방 등의 방재공학 및 정책에 관련된 화재·방화공학, 폭발·특수시설, 건축·토목구조물의 안전, 위기관리 및 지역방재체계, 도시시스템 안전분야 등을 연구한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선정한 도시과학분야의 특성화 우수대학이며, 앞으로는 세계적인 도시과학 연구·교육의 메카로 비상해 나갈 것입니다." 고준환 교학과장은 도시과학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도시가 존재하고 도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도시과학대학원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론 및 실무와 관련된 제반 도시 문제를 현장에서 발견하고,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자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도시과학과 같은 복잡한 학문을 주경야독(晝耕夜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만큼의 좋은 결과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야기를 마쳤다. ①7

장미라<본지 객원기자>

‘고위 도시정책과정’ 공개 강좌도

"도시화 및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 등에서의 사회적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공이나 강좌가 개설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제간 연구의 충실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시과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과학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이나 연구과정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의 주요 관리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법조인, 언론기관의 간부, 정부투자기관 및 기업체의 관리자, 군 고급장교, 지역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를 대상으로 '고위도시정책과정'이라는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지난 1995년부터는 서울시 건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방학중에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7년과 1998년에는 세계적인 대도시인 서울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와 환경·방재 등을 주제로 한 두 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도시과